

몽골과 고려의 변발(辮髮) 연구

김기선

단국대학교 문과대학 몽골어과 연구원

A Comparative Study on Pigtails for the Mongolian and the Koryo Dynasty

Ki-Sun Kim

Research Prof., Dept. of Mongolian Language School of Cultural Science, Dankook University

(2005. 3. 2. 접수; 3. 10. 채택)

Abstract

Information sources about Mongolian pigtail of 13~14C are relatively rich. But it was difficult to estimate the shape of the pigtail in detail with the descriptions in historical writing or travel books only, and paintings were neither enough to observe the beautiful shape of the pigtail closely on the whole because the portrayed characters were always wearing their hats. However, the authors could trace the detailed shape of the pigtail of 13~14C through close investigation into Mongolian stone statue of the period. In conclusion, the authors performed a comparative study by historically comparing the historical writings, archeological materials, ethnological materials and figurative arts featuring medieval Mongolian pigtail. And the authors paid careful attention to the meaning of those materials to the hairdo history..

Historically northern minority races have become assimilated with surrounding races in language, culture and customs through long economical and cultural exchange, and today their national traits gradually fade away by globalization. But each minority race still stands independently and maintain its own traditional culture. only recently began the study by Korean researchers on Mongolian pigtail, and there is still much to be discussed in ethnological issues such as racial pedigree.

Key Words: Mongolian pigtail(몽골 변발), northern minority(북방 소수민족), stone statue(석인상), hair style(머리 모양), Mongolian custom(몽골풍)

I. 서론

豆飾은 예로부터 각 부족집단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특히 머리모양(頭

髮)은 예로부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의복과 같은 차원에서 사람의 외모를 아름답게 표현하고자 하는 미용의 중요한 조건이 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몽골족은 자신들의 조상인 흉노로부터 원제국에 이르기까지 시대별로 부족마다 옷 색깔과 헤어 디자인, 조형 방법이 제각기 달랐다. 특히 몽골인의 두식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그 구제적

Corresponding author ; Ki-Sun Kim

Tel. +82-11-9038-3557, Fax. +82-41-550-3109

E-mail : sanho65@hanmail.net

실상은 다르게 인식되고 표현되었지만 머리 모양은 고려와 중세 몽골인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주요한 정신세계의 한 국면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緊要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예컨대, 고려 당시 성행 하였던 중세 몽골 남자의 머리모양은 그 형태에 있어 머리 정수리 양쪽 두정골 부위의 변발은 정수리를 중심으로 둥그렇게 뽀뽀히 밀고 돌려에 남은 머리털 중 앞머리는 이마쪽으로 사각형으로 늘어뜨리고 뒷머리는 두 귀의 귀편에서 두 줄로 뿔아 늘어뜨린 것(시빌게르)이 원제국 당시의 보편적인 모양이다. 모자의 경우 몽골 남자들은 예부터 끝이 뾰족한 모자를 썼다. 모자 위에는 붉은 술을 장식하는데, 이는 몽골족과 타민족을 구별하는 상징이었다. 오늘날은 서부의 오리양하이족 등 일부 소수민족에서만 전통적인 모자를 고집하고 있다. 외몽골의 헨티 아이막과 바이칼호 주변의 부리아트 몽골족은 모자 위에 씨족을 상징하는 줄을 11개~13개 정도 바느질로 꿰어 넣는다. 이것은 자신들 부족집단의 역사적 형성과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소수민족의 집단적 유대를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원과 밀접한 교류가 있었던 고려는 중세 몽고풍의 영향으로 조선 성종 때까지 몽골의 복식과 머리 모양이 성행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들과 관련 여러 자료들이 현재 양국의 석인상과 다양한 회화자료 및 출토유물들에서 확인되어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의 제1장에 먼저 麗末, 元제국과의 역사적 관계에 의해 고려에 몽고풍이 유입되어 성행하였던 수용과 변용과정 및 豆飾에 있어 당시 궁중에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이처럼 몽골의 머리 모양이 흡수, 동화되었던 이유는 무엇이며, 어떠한 연유로 고려에 유입되었는가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2장에서는 흥노로부터 만주족에 이르기까지 두식의 형태와 영향을 분석해봄으로써 여말 조선초에 이르는 蒙古風의 성격과 이것이 고려사에서 차지하는 역사적 의의를 살펴본 후, 3장에서는 몽골과 국내에서 발견된 석인상들을 통해 생활문화 등 그들이 끼친 영향의 문제를 분석 고찰해 봄으로써 이제까지 논의된 상황을 대조 점검하여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그것을 지적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몽골 변발의 수용과 변용과정

1. 麗·元 교류의 性格

(1) 변발의 수용과정

고려와 몽골은 비록 부마국으로 강화를 맺었지만 양국의 활발한 교류 속에 몽골의 간섭기에 들어가는 후기에 오면서 여러 변화를 보이게 된다. 본고에서는 역사적으로 북방 민족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된 그 배경과 실태를 밝히고, 당시 몽골의 철저한 내정 간섭으로 말미암아 사회구조에 있어 전반적으로 위축된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몽골제국의 몽골풍이 고려에 끼친 역사적 문화적 영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麗·元의 밀접한 역사적 배경에 따라 高麗樣, 蒙古風, 歸化人 등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하는 것도 변발과 연관된 고려 사회 자체의 성격과 본질을 이해하는데 있어 새로운 각도에서의 검토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이 당시 원으로 끌려간 고려인의 숫자는 공주, 시녀, 노비, 공녀, 상인들을 비롯하여 약 20만 정도로 추산되며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이들은 훗날 몽골지역에서 여러 고려촌을 형성, 몽골인들에게 고려풍속을 전하였다.

공녀 선발은 충렬왕부터 공민왕에 이르기까지 7대 왕조에 걸쳐 해마다 1년에 한 두 차례 16-18세 소녀 400-500명을 원의 요청에 의해 보내졌으며, 고려에서는 공녀를 뽑기 위해 《과부처녀추고별감》이라는 특별관청을 설치, 죄인의 딸, 금품제공, 무차별적인 납치 등의 방법으로 공녀를 징발하였다.

이때 고려 민간에서는 원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 여자들이 남장을 하고 다녔는데 이들을 가리켜 가시네(가짜사내아이의 준말) 라고 한데서 사회적으로 새로운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고려에서의 몽골풍의 정착은 정치적 간섭 외에도 당시 여러 형태로 고려에 귀화한 몽골인들을 주축으로 빠르게 고려사회에 정착되었을 가능성이 다소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들을 중심으로 한 服飾과 豆飾의 전파가 손쉽게 이루어졌다고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麗末 몽골인을 주축으로 한 귀화사례는 박옥열

(1996)의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대몽항쟁기인 고종 년간의 사례
- 고려에 대한 원의 직접적인 내정간섭기라 할 수 있는 원종 말년서부터 충정왕때까지의 사례
- 원의 몰락과 반원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하는 공민왕 이후의 사례

이들 가운데 첫 번째 유형인 고종 년간의 사례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우선 「來投」라는 용어를 분명하게 사용한 데서 이 시기가 아직 전쟁이 계속되던 시기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들의 귀화는 투항의 성격을 띤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두 번째 유형인 고종 15년(1274)부터 충정왕 원년(1349)까지의 사례들은 「來投」라는 용어를 쓴 예가 전혀 보이지 않아 고려에 공식적으로 귀화를 요청해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공민왕 이후의 사례인 세 번째 유형은 앞의 두 번째 유형과 대체로 비슷하나 일부 사례는 「來投」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1368년 원의 멸망과정에서 북경에서 귀화해 오거나 제주도 피난 궁궐을 짓고 있던 또는 고려에 체재하는 동안 원이 멸망하였기 때문에 돌아가지 못한 자들이라는 점에서 매우 특이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도 나타나듯이 고려에 元의 蒙古風이盛行했다면 몽골제국에는 초원으로 끌려간 고려 공녀와 유민들이 그곳에 정착하면서 고려의 음식문화 등 다양한 풍습을 전했으니 이를 高麗樣이라 한다. 공녀로 끌려간 이들 중에는 元의 마지막 황제인 순제의 황후가 된 여인도 있었으니 대원제국의 마지막 황후이었으며, 황태자인 아들을 통하여 초원의 북원(北元)시대를 열었던 기황후는 고려여인으로서 원나라에 끌려갔던 공녀였다. 공녀출신에서 원의 마지막 황제의 황후가 된 그녀는 당시 황제에 버금가는 권력을 쥐고 원나라의 마지막 30년간 권부를 휘둘렀던 여인이었다. 이방인이 이렇게 실권을 장악하여 한 제국을 좌지우지했던 역사는 유목민족의 역사에서 거의 전무한 일로서 고려 사회의 몽골변발 및 복식의 수용과정도 기황후의 치세와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麗末 원 궁중의 공녀로 끌려갔던 그녀가 어떻게 황후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으며, 아들 아요르 쉬리다라(빌릭투 한:몽골존호)를 통하여 중세 원제국과 근대사를 잇는 북원시대의 개막,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그녀가 몽골제국과 고려에 끼친 역사적 문화적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고려양(高麗樣)에 대한 기록은 원나라의 기록 곳곳에서 볼 수 있다. 고려양은 비단 복식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 음악을 비롯해서 생활 풍속, 음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퍼져갔다. 이 시기 고려에서 원에 전해진 음식으로는 찜밥과 빈대떡 및 쌀떡, 떡쌀 그리고 만두를 포함한 고려 茶食, 고려 조청까지 전해졌다. 그리고 북경에는 고려인의 집 단거주지인 고려정이 있었으며 초원에도 수많은 高麗城이 형성되었다.

공녀로 끌려가 황후가 된 기씨 여인을 비롯해 수많은 고려여인이 원나라로 건너가 고려촌을 형성했던 고려의 문화는 “고려양(高麗樣)”이란 이름으로 초원의 곳곳으로 퍼져나갔던 것이다.

한편 元에서는 高麗왕실에 총렬왕부터 공민왕에 이르기까지 7대 왕조에 걸쳐 여섯 공주를 고려왕실에 보내 몽골 습속을 따르도록 강요하였다²⁾.

「高麗史」〈총렬왕전〉에는 총렬왕비 노국공주가 고려 대신들이 보는 앞에서 총렬왕의 뺨을 때리며 자신의 말을 따를 것을 강요했던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려에 대한 원 정부의 간섭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다.

2. 辮髮의 어원과 몽골인의 머리모양

元代에 있어서의 몽골인 사이에 변발이 유행했던 것은 동서의 문헌에 많이 등장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몽골인의 신분에 따른 두식의 형태에 대해 자세히 언급한 자료는 빈약하여 정확한 고증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림벽화나 몽골초원과 제주도의 석인상 등 여러 회화자료를 통해 다소 중세 몽골인의 변발이 갖는 역사적 의미에 대해 접근해 볼 수 있다.

먼저, 국내의 문헌 속에 나타나는 변발의 형태는 고려 이전의 삼국 시기의 신라와 백제인의 머리 모양에서 나타난다. 곧 머리를 뒤로 묶어 길게 땀은

머리로 중국측 사서에는 신라와 백제의 미혼여자가 땀을 머리를 했다고 전한다.

“그들의 의복이 남자는 대략 고구려와 동일하였다. 조희나 제사지낼 때에는 관의 양쪽 곁에 깃을 달았으나 군사에는 그렇지 않았다. 절하고 빚는 예는 두 손을 땅에 짚어 공경을 나타냈다. 부인의 의복은 도포 같으면서 소매가 약간 컸다. 시집가지 않은 여자는 편발로 머리 위에 또아리를 틀고 뒤로 한 가닥을 늘어뜨리는 것으로 꾸밈을 삼았고, 시집간 사람은 이를 두 가닥으로 늘어뜨렸다. ; 在室者編髮盤於首 侯乘一道爲飾 出嫁者 乃分爲兩道焉 (주서 49:5가 열전 41 이역 상 백제)

이것이 高麗 시대에 들어서는 蒙古風의 영향으로 미성년의 처녀시절 소녀들의 正髮形으로서 일반 여염소녀들같이 한 가닥으로 길게 땅아 늘어서 끝에 짧은 땀기를 물리는 형식으로 자리잡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고려가 원의 속국이 되고나서 거의 백년가량을 몽고인과 접촉한 결과로 변발을 받아들이기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에 대해 개략적으로 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고려사」의 충렬왕 원년 10월의 기록에 「신유일.왕은 리 분희 등이 개체(開剃)하지 않은 데 대하여 책망하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저희들이 개체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여러 사람들의 예를 기다릴 따름입니다.》라고 하였다. 몽골의 풍습에 머리털을 정수리에서부터 이마까지 내려 깎는데 그 모양이 네모나게 하고 가운데는 머리털을 남기여 두었는바 이것을 겁구아(怯仇兒)라고 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원종 때부터 이미 고려의 신하들 중에는 몽고의 변발을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변발령을 단행할 수 없었고, 충렬왕이 즉위하자마자 스스로 변발을 하여 본이 되어 원조의 풍습을 장려한 것으로 보이고 충렬왕 4년(1278)의 기록에 변발령을 반포하여 백성들에게 변발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충렬왕의 변발과 변발령은 몽고의 위세를 두려워하여 환심을 사려는 것에 지나지 않고 또한 백성들이 이 풍습을 따랐던 것은 법령이 엄하였기 때문이지 진심으로 원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오자와(1930.30) 교수는 보았다. 이 때문에 몽골의 세력이 쇠락함과

함께 몽골 복식은 조선 성종조까지 이어졌지만 변발은 공민왕 이후 점차 사라지게 되었던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원 제국 이전의 그 땅을 지배했었던 민족 중에 흉노, 선비, 거란, 돌궐 등은 변발의 민족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변발은 근세의 만주인의 변발과 마찬가지로 머리 위부터 한 묶음으로 늘어뜨리는 것으로, 늘어뜨린 머리카락을 나누어 땅기도 하였다.³⁾

「고려사」의 변발에 관한 기록으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충렬왕 원년 10월의 기록에 의하면 그 대략적인 형태는 추측이 되지만 辨子(변자)의 위치나 숫자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변발의 명칭에 대해 白鳥庫吉(1926) 교수의 논의에서는 몽골의 문어에서 변발을 뜻하는 'Kuku'의 어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상술하였다.

몽골의 문어에서는 변발이나 긴 두발, 말총, 계관 등을 'kuku' 라 하고, Kalmuk어에서는 변발과 땀을 'Kukul' 이라 한다. 「高麗史」에는 변발을 가르키는 몽골어를 '怯仇兒' 라고 쓰고 있는 것은 위의 'Kukul' 과 같은 말이다. 「고려사」의 변발을 지칭하는 'Kukul' 은 「蒙古秘史」의 'Kekul' 과 동음으로 'Kukul' 로 된 것은 e모음이 뒤에 오는 '-ku' 의 모음인 {-u}에 동화된 결과이다. 元시대의 몽골어에 변발을 이르는 'Kekul' 과 'Sibulger' 라는 2가지 어휘가 있었다는 것은 여러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이 2가지 명칭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이들 어휘의 원어를 살피지 않고는 알 수 없다. 몽골문어에서 '아름답다', '멋지다', '미려', '장식' 을 'Keke' 라고 하고, 풍아(고상하고 멋있음)한 장식을 'Kekel' 이라 하는데 이렇듯 '아름답게 하다', '장식하다', '화장하다' 라는 원어로부터 변화하여 변발의 명칭이 되었을 것이다. 만주어에 높고 뾰족한 모발이나 새의 정수리에 난 털을 'Kukul' 이라고 하는 것은 몽골어의 'Kekul, Kukul' 과 同語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몽골어의 변발을 가리키는 'Kekul, Kukul' 의 어간은 'Keku, Kuku' 이고, 그 의미는 '장식, 화장' 의 뜻으로 元代 몽골어에서 부인들의 관(모자)도 고대에는 'Kuku' 로 발음하는데, 이를 위의 'Keke' 의 음운 변화로 보았다.

「몽고비사」의 몽골문어 중에 이 'Kuku' 에 해당 하는 몽골어는 보이지 않지만 그 대신에 이 관(모

자)의 하나의 명칭인 'boqta'가 기록되어 있고 또, 그 漢譯 중에는 'boqta'에 비교될만한 한어는 보이지 않으나 그 대신에 姑姑(Kuku)의 이름이 囹姑로 쓰여져 있다.

2. 몽골인의 머리모양

(1) 남자

중세 몽골인의 머리모양은 김문숙(2000)의 연구와 같이 개체변발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회화자료는 비교적 다양하다. 머리 정수리 양쪽 두정골(頭頂骨) 부위의 두발은 뽀뽀히 밀고 둘레에 남은 머리털 중 앞머리는 이마쪽으로 늘어뜨리고 뒷머리는 두 귀의 뒤편에서 두 줄로 땅아 늘어뜨린 모양이다⁴⁾. 이런 머리모양을 개체라고 지칭하기도 하고⁵⁾ 중국학자들은 삼탑두(三搭頭)라고 명명하기도 한다⁶⁾. 돈황 막고굴 332호에 묘사되어 있는 몽골 공양인의 모습으로 앞 이마의 케굴과 양 옆의 시빌게르 즉 변발의 모습이 뚜렷하다. 변발의 형태는 양쪽으로 나눈 것이 일반적이지만 머리를 하나로 땅아 뒤로 늘어거나 변발을 감아 올려 머리 뒤에 고정시키는 형태도 있다⁷⁾.

(2) 여자

몽골여자의 머리모양도 고려여자의 머리모양과 마찬가지로 결혼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몽골 미혼녀의 머리모양은 산서 서리장 원대 벽화에 보이는 약기를 들고 있는 여자의 머리모양처럼⁸⁾ 머리를 두 갈래로 나누어 양쪽으로 땅아 늘어거나 쌍라계(雙螺髻)와 같이⁹⁾ 머리를 양쪽으로 나누어 소라딱지처럼 양쪽 귀 뒤에 감아 고정시키는 형태, 그리고 시녀의 머리모양처럼 양 귀 뒤로 묶어 주는 것인데 이는 고려 미혼여성의 머리모양 중 하나인 쌍수계와 유사하다.

기혼녀의 머리모양은 대체로 계를 정수리 위에 감아 올리는 형태로 중국학자들은 고라계(高螺髻) 혹은 포계(包髻)로 명명하고 있다¹⁰⁾¹¹⁾. 여주인의 머리모양과 섬서 호현 하씨묘 출토 여시용의 머리모양이 이에 해당된다.

Ⅲ. 북방민족의 두식(豆飾)

1. 원의 주변국 - 여진(금)족의 머리모양

(1) 남자

여진족 남자의 머리모양은 하남 초작 금묘 발견의 남자용의 발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김문숙(2000)의 논의에서는 위 남자용의 발식에서 앞이마와 두정부의 대부분은 깎고 귀 뒤로 늘린 변발이 어깨에 이르는 형태로 이는 거란인의 머리모양과 비교할 때 양 옆머리를 늘이는 방법에서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거란족은 그대로 내리는 것에 비해 여진족은 땅아서 늘이는 것이 다르다고 보았다. 이는 『대금국지』에 “금나라 사람들은 백색 옷을 좋아하고 변발은 어깨에 닿는데 이것이 거란과 다르다. 금환을 걸고 색사로 뒷머리를 묶는다. 부자는 진주를 사용하고 금장식을 한다. 부인은 변발반계하고 관은 없다”고 있어¹²⁾ 변발이 여진족의 특성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여자

여진족 여자의 머리모양도 기혼녀와 미혼녀에 차이를 보인다. 하남 정주 등봉왕상 벽화의 시녀도에서 기혼녀로 보이는 여성은 머리를 틀어 올렸고 미혼녀의 여성은 소위 쌍수계의 모습이다¹³⁾.

『대금국지』의 기록을 고려한다면 그림 속의 얽은 머리는 변발반계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겠다¹⁴⁾.

1.1 주변민족의 변발과 관련된 회화자료 및 특징

(1) 남자

돈황 막고굴 332호- 이 벽화에 묘사되어 있는 몽골 공양인의 모습은 양쪽으로 나눈 변발의 일반적 형태의 머리모양이다.<그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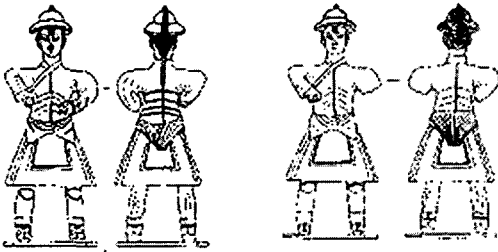
섬서성 호현 출토- 머리를 하나로 땅아 뒤로 늘어거나 변발을 감아 올려 머리 뒤에 교정한 모습이 다.<그림2><그림3>

몽골과 관련 있는 주변민족들 중 거란인의 곤발은 몽골과는 달리 정수리 머리는 모두 깎고 옆머리 일부를 남겨 늘어뜨리는 것이다. 거란의 곤발은 앞이마에 고흘을 남기지 않는다는 점과 양 옆머리를 그대로 늘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반면 여진족은 앞이마와 두정부의 대부분은 깎고 귀 뒤로 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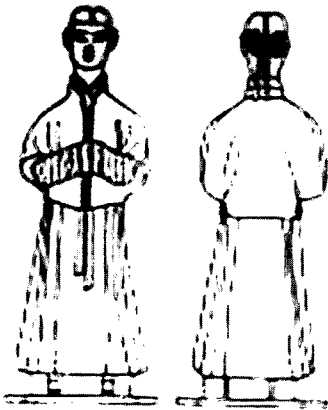
<그림1> 돈황막고굴 332호.

자료출처: 김문숙 (2000). 고려사대 원 간섭기 일반복식의 변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184



<그림2> 섬서성 하씨묘

자료출처: 김문숙 (2000). 고려사대 원 간섭기 일반복식의 변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184



<그림3> 섬서성 하씨묘여옹

자료출처: 김문숙 (2000). 고려사대 원 간섭기 일반복식의 변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185

변발이 어깨에 이르는 것이 특징이다.

(2) 여자

- 결혼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미혼녀

- 머리를 두 갈래로 나누어 양쪽으로 땅아 늘임:
예) 산서성 서리장 원대 벽화
- 머리를 양쪽으로 나누어 소라딱지처럼 양쪽 귀 뒤에 감아 고정시키는 형태(双螺髻)
- 양 귀 뒤로 묶어주는 형태

기혼녀

- 계를 정수리 위에 감아 올리는 형태로 이것을 고라계(高螺髻) 또는 포계(包髻)라고 부른다¹⁵⁾.

이밖에도 오늘날 벽화에 묘사되어 전해 내려오는 중세 몽골인의 일반적인 변발의 형태의 시각자료는 김문숙(2000)의 연구 자료¹⁶⁾ 등에서 많이 나타난다.

IV. 석인상을 통해서 본 중세 몽골인의 변발

1. 문헌 속의 辨髮(編髮)

중세 몽골인들의 변발 형태에 대해 우리들의 흥미를 끄는 주요 자료는 국내에서 발견된 일부 석인상 및 동몽골의 석인상에 묘사된 변발의 형태와 중세에 몽골을 여행하고 기록을 남긴 사신이나 여행자들의 견문록이다.

13C대 몽골에 온 사신이나 여행자들은 몽골인들의 습관이나 모습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록을 남기고 있다. 남송(南宋)의 사신 맹공(孟珙:1220~21년)에 몽골에 왔음의 《몽달비록(蒙辨備錄)》, 장춘진인(長春真人:1220~26)의 《서유기》, 남송의 관리인 팽대아(彭大雅:1232), 서정(徐霆:1235~36)의 《흑달사략(黑?事略)》, 유럽의 여행가인 N.카르피니(1245~46)의 《몽골여행기》, G.D. 루브루크(1253~55)의 《동행기(東行紀)》 등에 변발에 관한 기록이 나타난다. 위의 변발형은 이들의 기록속에 묘사된 남성의 변발형과 아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이들이 변발에 대해 기록한 부분을 D. 바이에르(1994)의 논의에서 재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멩공은 “위로는 칭기스칸으로부터 아래로는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변발을 하고 있다. 중국의 어린아이들 식으로 세 부분으로 나눈 테베크(변발을 하기 위해 머리에 남긴 머리털)를 두고 있다. 정수리 위에 있는 것은 조금만 자라도 자르며 뒷머리에 있는 두 개는 위로 묶어 어깨에 늘어뜨린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1220년 봄 북경을 방문했던 장춘진인은 “남자는 머리털을 꼬아 묶어서 두 귀 아래로 늘어뜨린다”라고 그의 일지에 기록하고 있다.

유럽의 여행자들은 변발에 관하여 아주 상세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P. 카르피니는 “남자들은(카톨릭의) 성서준수자식으로 정수리 위에 탑 게제크(tab gezeg :동글게 남긴 머리털)가 있다. 탑게제크 주위는 양쪽 귀 위에서 두 손이 들어갈 정도의 면적으로 삭발되어 있다. 탑게제크는 앞이마로 늘어뜨려 눈썹에 이를 때까지 기른다. 얼굴 옆면에 있는 살쾅은 얼마간 남아 있도록 조금만 자른다. 다른 부분은 여자처럼 길게 길러 두 갈래로 나누어 꼬아 묶은 뒤 등 뒤로 늘어뜨린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루브르크는 “남자들은 정수리에 사각형모양의 머리털을 가지고 있다. 이 머리털 아래의 양옆은 윗부분까지(면도로 민 것처럼)삭발되어 있다. 정수리에 있는 머리털은(말머리 털을 조발하는 식으로)조발되어 있으며 앞이마나 눈썹근처까지 그 머리털을 늘어뜨리고 있다. 뒷머리에 남아 있는 머리털은 두 갈래로 나누어 꼬아 묶은 뒤 두 귀 뒤로 늘어뜨리고 있다”라고 기록¹⁷⁾한 여러 구체적인 예들을 들어 바이에르(1994) 교수는 이러한 특징들이 동몽골의 몽골석인상들이 갖고 있는 변발의 특징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였다¹⁸⁾.

더욱이 그는 13~14C 몽골인들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외국의 사신이나 여행자들이 기록한 변발의 특징묘사는 우리들이 연구하고 있는 석인상들의 변발과 어떠한 모순도 없이 들어맞고 또한 그 시대의 그림 가운데에도 위와 똑같은 형태를 가진 변발이 묘사되어 있다고 말한다. 예컨대 몽골문서국에서 1926년에 출판한 《원제국시대의 칸·카툰들의 초상》이라는 사진책과 상해에서 출판된 《중국의 황제·황후들의 초상》이라는 사진책 속에 있는 원

제국시대 칸들의 초상, 이스탄불의 토프카피 사라이 박물관, 베를린의 프러시아 문화유산도서관, 데모트 컬렉션 등에 보관되어 있는 라시드-알-딘의 《집사》 및 그밖의 페르시아책들속의 삽화들, 원대 중국화가들이 그린 몽골인들의 생활을 주제로 한 그림들, 투르판에서 발견된 벽화 등에서 위와 같은 변발을 가진 몽골인들을 만날 수 있다. 또한 탕구트의 하르호트에서 발견된 그림가운데에도 몽골인들과 아주 유사한 변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몽골인들이 위와 같은 형으로 변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오랜 전통을 가지고 이어져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 역사서나 고고학 자료를 통해 볼 때 몽골의 선조인 흉노, 선비, 유연 등의 남자들도 변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단지 변발을 했다는 것만을 알 수 있을 뿐 실제 어떠한 변발형태를 가지고 있었는가는 명료하지 않다. 그러나 11C 거란의 고분벽화에는 거란인들의 의상이나 변발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 벽화를 보면 거란인들은 정수리 위에 있는 머리털은 삭발하고 다른 것들은 남기고 있는데, 이 방식은 몽골인들이 가지고 있는 방식과 부분적으로 유사한 면이 있다.

통일국가가 성립되기 전의 몽골인들의 변발형태를 보여주는 그림이 우즈베크공화국 과학아카데미 동양학연구소에 보관되어 있다. 이 그림은 칭기스칸의 조부인 바르탐-바아타르와 그의 부인인 수니겔-우진의 초상화이다. 바르탐-바아타르의 머



〈그림4〉 사립광기
자료출처: 김문숙 (2000). 고려시대 원 간섭기 일반복식의 변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182

리에는 고희와 시빌게르가 묘사되어 있다. D. 바이에르 교수는 이 그림을 비록 《集史》의 장식을 위해 14C때 그려졌지만 12C 몽골인들의 변발을 가능한 사실적으로 묘사했다는 것을 의심할 바 없는 것으로 보았다.

2. 몽골과 국내의 석인상을 통해서 본 몽골인의 두식

국내에서 발견된 중세의 것으로 보이는 몇 기의 석인상¹⁹⁾과 13~14C 몽골석인상에는 그 당시의 유행을 보여주는 변발이 아주 흥미롭게 묘사되어 있다. D. 바이에르(1994) 교수는 자신이 저술한 책의 3장에서 “석인상을 연구한 학자들의 모든 저서를 살펴봐도 우리들이 연구하고 있는 석인상들에 나타난 독특하고도 흥미로운 형태를 가진 변발은 다른 어떠한 종류의 석인상에도 나타난 바 없다”고 몽골 석인상의 특징을 설명한 바 있다. 예컨대, 돌궐석인상은 머리털을 많은 갈래로 꼬아 묶어 등에 늘어뜨리거나 한 갈래로 몽땅 꼬아 묶은 통통한 변발을 가지고 있으며, 폴롭츠석인상도 머리털을 한 갈래 혹은 세 갈래로 꼬아 묶어 등뒤로 늘어뜨린 변발을 가지고 있다. D. 바이에르 교수는 이러한 특징을 갖는 변발형을 돌궐계 민족의 독특한 특징으로 보았다.

특히 13~14C 동몽골의 석인상에는 역사적으로 이미 확정된 변발의 한 모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즉 머리털을 두 갈래로 나누어 꼬아 묶은 다음 귀 뒤에다 덩어리(東)처럼 말아 묶어 어깨까지 늘어뜨린 변발형이다. 지금까지 동몽골의 수흐바타르 道를 중심으로 발견된 몽골석인상 66기중 위와 같이 남성의 변발형을 묘사한 석인상의 수는 머리가 잘려 없어진 것을 제외해도 28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일부 석인상에서는 여성의 머리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연구대상의 석인상중 거의 절반에 변발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비율은 다른 석인상류와 비교해 볼 때 유례없이 높은 것이다. 변발의 대부분은 모자 아래에 돌출된 모습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변발의 완전한 형태라고 생각되는 형이 모자 없이 만들어진 2기의 석인상의 머리에 나타나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2기의 석인상은 두 귀의 뒤에 덩어리로 말아 묶어 늘어뜨린 시빌게르와

정수리로부터 앞이마로 늘어뜨린 고희를 가지고 있다. 이 고희는 모자를 쓰고 있는 한 석인상에도 나타나 있다.

이러한 흥미로운 변발은 이전부터 학자들의 주의를 끌어들였다. 다리강가의 석인상을 최초로 연구했던 B.A. 카자키에비치는 이것을 13C의 여행자 루브루크가 설명·기술하였던 몽골인들의 변발과 동일시하려는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H. 세르-오드잡은 이것을 정수리에 상투를 튼 뒤 상투를 감아 묶었던 최후의 머리털을 모자 밑으로 늘어뜨린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L.L. 비크토로바는 도르노트 아이마크에 있는 일부 석인상들의 변발은 13C 유럽인 여행자들이 남긴 특징묘사를 근거로 비교·연구해 볼 때 13~14C 몽골인들의 고유한 변발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13~14C 몽골인들은 어떻게 변발을 했을가의 물음에 구체적인 답을 주는 것이 위에 언급한 두 석인상의 머리에 묘사된 변발의 형태이다. 이 변발의 형태에 대해 D.바이에르(1994) 교수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먼저 정수리 위에 약간의 머리털을 남기고(정수리에서 앞이마까지 이어지는 네모반듯한 일자형) 그 주위를 면도하는 식으로 밀어 깎는다(밀어 깎을 때 관자놀이 선까지가 면도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관자놀이를 기점으로 한 뒷머리의 털은 건드리지 않고 남겨서 두 갈래로 나누어 변발을 끈뒤통의 뒤에다 하나씩 배치한다. 꼬아서 길게 늘어진 머리털을 다시 덩어리처럼 둥글게 말아 묶어서(어깨까지) 늘어뜨린다.

결론적으로 위 자료들을 통해 볼 때 13C의 몽골 남자들은 칸에서 평민에 이르기까지 위에 언급된 오직 한 가지 양식으로 변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정복된 나라의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변발이 널리 퍼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대 몽골 변발과 관련된 이름 술어는 《蒙古秘史》와 《集史》 등의 역사서속에서도 적지 않게 만날 수 있다. A. 모스타에르트는 몽골칸들의 초상에 대한 연구논문에서 역사기록과 민족학 자료들을 비교·대조한 결과 정수리부분의 머리털은 ‘kekul’, 귀뒤에 늘어뜨린 두개의 변발은 ‘sibuulger’라고 불린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또한 L.P. 스이치에프, H. 이시잡츠도 그들의 저

서속에서 고대 몽골의 변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몽골인민 공화국의 역사》속에도 “남자들은 주로 수염을 기르고 있다. 또한 고홀과 머리털을 꼬아 두 귀 뒤로 늘어뜨린 두 개의 시빌게르를 가지고 있다”라고 몽골인들의 변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변발의 앞과 뒷부분을 가리키는 이 이름들은 오늘날의 몽골인들에게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말머리(馬頭) 위의 속소우스나 어린이들이 3살 때 머리 깎는 의식인 우르게흐 요슬롤을 행할 때 남기는 일부분의 머리털을 고홀이라고 부르고 있다. 또한 꼬아서 늘어뜨린 처녀들의 머리털을 ‘세브게르’, 꼬아서 늘어뜨린 부인들의 머리털을 ‘시베를레크·시레브겔’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이름들은 모두 고대 변발의 유풍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았다.

어린이 정수리 위에 남긴 머리털을 고홀이라고 부르는 전통은 투르크계 민족들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예컨대 바잉을기의 카자흐인들은 이것을 ‘케크일’이라 하고, 우즈베크인들은 처녀들의 귀 밑에 끈 머리털을 ‘코킬’·‘코쿨’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이름들은 모두 러시아어를 통해 들어갔다고 보여지는데 이는 우크라이나의 자포르지예주의 카자흐인들이 정수리 위의 고홀 같은 머리털을 일반적으로 ‘호홀’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에서도 확인되는 바 학자들은 이미 이 이름들이 몽골에서 기원된 말이라는 것을 확정하고 있다.

몽골의 영웅서사시들 속에서도 변발에 대한 기록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그 한 예로 장가르(몽골민족의 대표적인 구전문학의 하나, 서사시류)에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를 D. 바이에르(1994)에서 재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긴 은빛 고홀을
늘어진 백단나무처럼
늘어뜨리고 있었다.
전해에 남겨두었던 것은
다음해에는 잘려지는 것
그리고 또다시 검은 머리는
귀 뒤에 4호로(XYPYU: 척도의 단위로서 약
2cm의 길이) 정도로 무성히 자라나²⁰⁾

또한 ‘용감한 동크-아라즈’라는 서사시에서는

동크-아라즈용사가 적을 물리친 상징으로 66가닥을 가진 변발을 엮은 뒤 황금끈으로 그것을 묶었다는 것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원래 고대 몽골인들은 사람의 생명을 머리·허파·심장·변발에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것들을 통틀어 ‘줄트’라고 이름붙이고 있다. 서사시들 속에 나오는 용사들은 적을 물리친 상징으로 대부분의 경우 모든 줄트를 대신하여 단지 변발만을 잘라가지고 있다. 이는 몽골인들이 변발을 아주 최상의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다.

위에서도 나타나듯이 13~14C의 몽골변발에 관한 자료는 비교적 풍부한 편이다. 그러나 그 이후 시대의 변발에 관한 자료는 아주 부족하다. 《황금사》에 “하라고초를 내가 죽였다는 증거로 그의 변발을 가지고 나가초-에센-타이시에 갔다”라고 기술되어 있는 것은 15C 몽골인들이 변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 줄 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에도 ‘토노크-아바흐-요스(적을 죽인 뒤 그 증거로 시체의 어느 한 부분을 잘라가지고 오는것)’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16C때 몽골에 왔던 명(明)의 관리 소대형(蕭大亨)이 지은 《北虜風俗》에도 변발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다. 알탄바가나와 아스랄트가 몽골어로 이 책을 각각 번역하였는데 변발에 관한 부분에서는 양자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여튼 이 번역서를 통해 보면 그 시대의 몽골인들은 정수리 위에 머리털을 남겨 변발을 엮고 그 나머지 머리털은 모두 잘랐다는 즉 시빌게르는 없고 고홀만 있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다. 이 시대에 속한 두메트의 알탄한 초상에는 어떠한 변발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와 동시대 인물인 할하의 압타이사인한 초상에도 변발이 없다. 17C 중엽에 몽골이나 칼목 지방에 다녀갔던 러시아나 유럽의 여행자들도 당시 몽골인들은 머리 위에 오직 하나의 긴 변발만을 가지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²¹⁾. 이것들은 고대 몽골변발이 이 시대에는 이미 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바이에르(1994) 교수는 자신이 직접 동굴무덤 발굴작업에 참여하였던 고고학적 답사보고서를 통해 위의 견해들을 재고시켜주는 새로운 증거가 몽골지방에서 발견되었다고 적고 있다.

이것은 헨터 아이마크 델게르항 솜의 준바얀불라크라는 지역의 입구에 있는 헤이튼호쇼라는 곳

에서 몽골학자들이 발굴한 한 몽골묘의 올드보르이다. 이 묘는 지금까지 발견된 두 곳의 동굴무덤 중 하나로 암석동굴 속 묘의 상면에는 큰돌이 덮개처럼 놓여 있었다. 이 묘에서 짙은 벽천으로 감싸 말아둔 남자의 유체가 나무안장과 함께 발견되었다. 이 유체의 두개골 뒷목덜미부분에는 두 갈래로 꼬아 묶은 변발형태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정수리에 고홀이 있는지 없는지는 판명할 수 없었다고 동굴 속 무덤의 발굴 연구보고서는 전하고 있다.

V. 결 어

몽골인들의 변발에 관한 자료들은 비교적 많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역사서나 여행기 등의 기록만으로는 그 변발이 어떠한 형태인지 구체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형태를 묘사한 그림에서도 대상인물들이 항상 모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변발이 아름다운 형태를 전체적으로 세밀히 관찰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 그러나 13~14C 몽골석인상에 묘사된 변발과 벽화에 묘사되어 있는 여러 자료들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그 당시 몽골인들의 변발형태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다.

위 자료들을 통해 볼 때 고려의 변발은 「고려사」의 「머리털을 정수리에서부터 이마까지 내려 깎는 데 그 모양이 네모나게 하고 가운데는 머리털을 남기어 두었는데 이것을 검구아(祛仇兒)라고 하였다.」고 하는 기록과 같이 시대적 배경에 따른 중세 몽골인의 고유한 변발이 그대로 고려 사회에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3C의 몽골남자들은 칸에서 평민에 이르기까지 위에 언급된 오직 한 가지 양식으로 변발을 하고 있다는 것과 또한 정복된 나라의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변발이 널리 퍼져 있었다는 것이 고고학적 답사보고서를 통해 위의 견해들을 재고시켜 주고 있다. 몽골인의 신분에 따른 두식의 형태에 대해 자세히 언급한 자료는 빈약하여 정확한 고증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여러 자료에 의하면 고려 사회의 변발의 수용은 원종 때부터 당시의 밀접한 麗·元 관계에 따라 이미 고려의 신하들 중에는 몽고의 변발을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변발령을 단행할 수 없었고, 충렬왕이

즉위하자마자 스스로 변발을 하여 본이 되어 원조의 풍습을 장려한 것으로 보인다. 충렬왕 4년(1278)의 기록에 변발령을 반포하여 백성들에게 변발을 하게 하였으나 기실은 이러한 충렬왕의 변발과 변발령은 몽골의 위세를 두려워하여 환심을 사려는 것에 지나지 않고 또한 백성들이 이 풍습을 따랐던 것은 법령이 엄하였기 때문이지 진심으로 원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몽골의 세력이 쇠락함과 함께 몽골 복식은 조선 성종조까지 이어졌지만 변발은 공민왕 이후 점차 사라지게 되었던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중세 몽골인들의 변발은 D. 바이에르(1994) 교수의 석인상의 연구에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보면 변발은 두 가지 기본양식으로 꾸며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귀 뒤에 늘어뜨렸던 시빌게르를 한 갈래로 둥글게 말아 올려 묶는 것, 두 번째는 이것을 많은 갈래로 나눈 뒤 크게 한 덩어리로 말아 올려 묶어서 늘어뜨리는 양식이다. 석인상에서 나타난 이 양식의 차이는 그림에서도 역시 나타나고 있다. 황금씨족인 몽골칸들의 초상을 게재하고 있는 화집에서 오직 칭기스칸만이 전자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사이살이 발표한 칭기스칸의 초상도 위와 똑같은 양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얼지트르르(1294~1307), 하이산홀레그(1307~11), 아우르바르바트(1311~20), 텡터르(1329~32) 등의 칸들은 후자의 양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몽골제국의 1대 칸인 칭기스칸이 전자의 양식을, 13C 말경부터 14C 중엽의 칸들이 후자의 양식을 취하고 있는 것은 변발에도 시대차이가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라 할 것이다.

몽골변발은 시대가 많이 흐른 오늘날에는 비록 잊혀져 있지만 그 유풍은 오늘날에도 일부형태로나마 전해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남아어린이들이 세 살 때 머리 깎는 의식을 행할 때 '고홀', 살마이(salmai), 테베크(tebeg), 손조(sunzuu)라고 부르는 약간의 머리털을 정수리 위에 남기는 관습이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중세 몽골인의 변발과 관련된 자료들을 시대별로 역사서·고고학·민족학·조형 예술 등의 자료들과 비교하는 방식을 통해 그 성격을 규명해 보고자 하였으며 위의 자료들이 豆飾의 역사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도 주의 깊

게 살펴보았다.

몽골은 한국 민속학의 寶庫이다. 역사적으로 북방의 각 소수민족들은 주변 민족들과의 장기간에 걸친 경제·문화의 교류로 인해 언어·문화·습속 등이 점차 비슷해가고 있고, 오늘날은 세계화에 의해 점차 민족의 색깔을 잃어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각 소수민족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아직도 고유의 전통 문화를 향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의 몽골의 변발에 대한 연구도 근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일부 학자들에 의해 시작했으나, 복식 등 민속학적 일부 문제들은 아직도 많은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하겠다.

참고문헌

- 1) 앞머리의 몽골어음은 ‘고홀’(중세몽골어음; 케굴) 또는 ‘계쩍’이다. 《고려사》에는 한자음의 轉成으로 겁구아(怯仇兒)로 표기하였으며 이를 달리 삼탑두(三搭頭; 考古 1995)라고도 불리었다. 위와 같은 머리 모양은 원 제국 당시 칸에서 평민에 이르기까지 수염의 형태만 다를 뿐 오직 한 가지 양식으로 변발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2) 칭기스칸은 제국법인 ‘자삭’의 효율적인 적용을 위해 우리에게는 質子제도로 알려진 케식텐제(엘리트 군사·정치 종합학교)를 통하여 먼저 각국의 왕들에게 이를 교육하고 가르쳤을 것이다.
- 3) D. 바이에르 교수는 이들 민족의 변발에 대해 이들이 단지 변발을 했다는 것만을 알 수 있을 뿐 실제 어떠한 변발형태를 가지고 있었는가는 명료하지 않다. 그러나 11C 거란의 고분벽화에는 거란인들의 의상이나 변발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 벽화를 보면 거란인들은 정수리 위에 있는 머리털은 삭발하고 다른 것들은 남기고 있는데, 이 방식은 몽골인들이 가지고 있는 방식과 부분적으로 유사한 면이 있다고 보았다.
- 4) 민기. “몽골어휘사귀기 185”.
- 5) 『고려사』 輿服 11 “蒙古俗 剃頂至額方其形 留髮其中 謂之開剃”.

- 6) “복건 將樂 원대 벽화묘”. 복건성박물관. 考古 95(1).
- 7) “협서 戶縣 賀氏묘 출토 대량 원대 용”. 咸陽지구문물관리위원회. 文物 794.
- 8) “산서 運城 西里庄 원대 벽화묘”. 산서성 고고연구소. 文物 884.
- 9) “섬서 戶縣 賀氏묘 출토 대량 원대 용”. 咸陽지구문물관리위원회. 文物 794.
- 10) “섬서 戶縣 賀氏묘 출토 대량 원대 용”. 咸陽지구문물관리위원회. 文物 794.
- 11) “西安 曲江池 西村 원묘 정리간보”. 협서성문물관리위원회. 文物 586; “내몽고 적봉시 元寶山區 區宇家·沙子梁 원묘”. 중화복식예술원류, p.300.
- 12) 『大金國志』卷 39 男女冠服條 “金俗好衣白辨髮垂肩與契丹異.垂金環 留鬚后髮 以色絲富人用珠 金飾 婦人辨 髮盤髻 亦無冠…” 河南省博物館 焦作市博物館, “河南焦作金墓發掘簡報”. 文物 79(8).
- 13) 鄭州市文物工作隊. “登封王上壁畫墓發掘簡報”. 文物 94(10).
- 14) 焦作市文物工作隊. 修武縣文物管理所. 河南修武大位金代雜劇塼調墓”. 文物 95(2).
- 15) 김문숙 (2000). 고려시대 원 간섭기 일반복식의 변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p.146-149.
- 16) 1. 돈황 막고굴 332호 벽화.
2. “복건 將樂 원대 벽화묘”. 복건성박물관. 考古 95(1).
3. “內蒙古赤峰市元寶山區 區宇家沙子梁元墓”. 묘주인 벽화. 文物 83(4).
4. 무사용(섬서성 하씨묘 출토): “섬서 戶縣 賀氏묘 출토 대량 원대 용”. 咸陽지구문물관리위원회. 文物 79(4).
5. 고궁박물관 소장 원대 여용: 주석보. 중국고대복식사, p.372. 도31.
6. 원 태조 성길사한상 (문물 62(10)); 원 성종 상, 세조 상; 주석보. 중국고대복식사, p.359.
7. 『事林廣記』중 삼도; 주석보. 중국고대복식사, pp.360-361.
- 17) 白鳥庫吉 (1930.32). 교수는 이들 여행자들의 기록을 종합하여 이 두발의 규칙에 대해 다

음과 같이 명확히 정리하였다. 즉 이 이발법에 의하면, 먼저, 머리의 앞부분과 정수리부분을 밀은 다음은 머리 앞부분의 이마쪽 부분은 머리카락을 남겨 짧게 잘라 내리고, 좌우의 머리카락은 두 갈래로 어깨까지 내려뜨렸음을 알 수 있다. 남자는 머리의 정수리부분을 사각형으로 밀고 또한 그 사각형의 앞의 양귀퉁이부터 머리의 양측면을 따라 관자놀이 주변까지 밀었다. 또는 관자놀이와 목 뒷부분을, 뒷머리 골진 부분과 이마 시작 부분까지를 밀었다. 이마의 양쪽에는 한 묶음의 머리카락을 남겨서 어깨 위로 늘어뜨리는 정도로 하고 머리의 양측 면에 있는 머리는 그대로 나누고 양쪽 귀의 주변에서 땅아 내렸다.

- 18) 바이에르, D., 박원길 역 (1994). *몽골석인상의 연구*. 해안출판사, pp.59-60.
- 19)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견된 것으로 변발이 확인되는 자료로는 기황후의 능에서 발견된 1기와 삼별초가 진도에서 왕으로 추대했던 承化侯 溫의 능 앞에 세워진 1기 및 한국몽골학회가 1990년 제주도 석인상 답사에서 발견한 약 2기의 석인상에서 중세 몽골인의 頭飾이 확인된다.
- 20) 바이에르, D., 박원길 역 (1994). *Op. cit.*, p.63.
- 21) 바이에르, D., 박원길 역 (1994). *Op. cit.*, pp.65-66.
- 22) 김용숙 (2000). *조선조 궁중풍속연구*. 서울: 보광문화사.
- 23) 박옥열 (1996). *高麗時代の 歸化人 研究*. 국학자료원.
- 24) 北譯 高麗史 (1992). 신서원.
- 25) 白鳥庫吉 (1926). *몽골과 고려의 변발*. 史學雜

誌 37(3). 대정 15년.

- 26) 元高麗記事 (中華民國61年). 北虜風俗 四夷館考. 廣文書局. 臺北
- 27) ЕВ ТЮХОВА, Л. А. (1952). 《남시베리아와 몽골지역에 있는 돌조각(КАМЕННЫЕ ИЗВАЯНИЯ ЮЖНОЙ СИБИРИ И МОНГОЛИИ)》(소련 고고학 연구자료집) (МИА) NO. 24. 모스크바.
- 28) КЫЗОЛСОВ, Л. Р. (1964). 《사람형상을 지닌 고대 돌궐석인상과 그 건립목적(ОН АЗНАЧЕНИЙ ДРЕВНИЕ ТЮРКИСКИХ ИЗВАЯНИЙ ИЗ ОВРАЖАЮЩИХ ЛЮДЕЙ)》. 소련고고학지(СА). NO. 2.
- 29) ШЕР, Я. А. (1966). 《시에미리에치야의 석인상(КАМЕННЫЕ ИЗВАЯНИЯ С ЕМИРЕ ЧБЯ)》 모스크바-레닌그라드.
- 30) ПЛЕТНЕВА, С. А. (1974). 《폴로베츠크의 석인상(ПОЛОВЕЦКИЕ КАМЕННЫЕ ИЗВАЯНИЯ)》. 고고학자료집(АИ) E-4. 모스크바.
- 31) КУБАРЕВ, В. А. (1984). 《알타이주에 있는 고대 돌궐석인상들(ДРЕВНИЕ ТЮРКИСКИЕ ИЗВАЯНИЯ АЛТАЯ)》. 노보시비르스크.
- 32) ЧАРИКОВ, А. А. (1976). 《동카자흐스탄의 중세초기 석인상들(РАНИЕ СТРЕДНИЕКОВЫЕ СКУЛЬПТУРЫ ИЗ ВОСТОЧНОГО КАЗАХСТАНА)》. 소련고고학지 NO. 4.